

빨간)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촉발된 세계..

○ ○

80년대 말, 남이탈리아공화국 시라쿠사 시의 어느 음침한 지하실에선 오늘도 단사(단눈치조사상연구회)의 열띤 토론과 독서회가 이어지고 있다...

방 한켠 벽에는 '쌍화차, 수정과 안 마시기!'나 '한자, 한글, 가나 문신하지 않기! 칭총말 쓰지 않기!'와 같은 생활수칙에 대한 안내문이 먼지 낀 액자를 속에 고이 걸려 있으며, 방음벽 너머에선 오늘도 국풍 민족문화 양성을 위해 오페라패 '우리민족 브라보!'가 열심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단사'의 민주청년들은 강철인간(러시아 말로 쓰팔린 ㅎㅎ)서신을 읽으며 혁명전사에게 걸맞는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 뒤, 민중가요 '들어라 칭총아'를 부르고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향한 의지를 굳게 다진다..